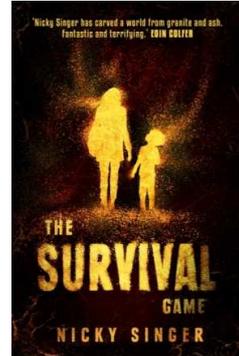


## JUVENILE TITLES

### FICTION

제목 : THE SURVIVAL GAME  
가제 : 서바이벌 게임  
저자 : Nicky Singer  
출판사: Hodder Children's Books  
발행일: 2018년 7월 26일  
분량 : 384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히브리어, 이탈리아어, 러시아어 번역 계약 체결
- \* “매혹적인 소설. 마지막 장을 읽은 뒤에도 오랫동안 여운이 남는 아름다운 이야기” - 「WRD 매거진」
- \* “너무나 아름답지만, 동시에 무섭고 마음 깊이 슬픔을 느끼게 하는 소설” - 도서 리뷰 사이트 The Bookbag

지구온난화로 적도와 가까운 곳에서는 말 그대로 고온에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시대가 되자, 모두 북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나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은 한정되어 있고, 이미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살기 위해 물밀듯이 유입되는 사람들을 모두 받아줄 수는 없다고 판단한다. 국경보다 훨씬 더 촘촘한 지역별 경계가 수립되고, 이들이 정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만이 그 경계를 넘어 보다 안전한 곳, 살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다.

아빠의 고향인 스코틀랜드 애런 섬에서 태어났지만 수단에서 일하던 부모님과 함께 어릴 때부터 아프리카에서 살았던 소녀 마이리도 그 피난 대열에 합류한다. ‘세계 시민’이라는, 아주 편리하고 유용한 여권을 소지하고 할머니가 계신 곳, 스코틀랜드로 홀로 긴 피난길에 나선 마이리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하루하루는 어느 날 예기치 않은 동행까지 생기면서 더 큰 위기를 맞이한다. 말을 못하는 아이, 심지어 볼들리면 당장 죽임을 당한다고 알려진, 여권 없는 꼬마를 만난 것이다. 북으로, 북으로 걷고 또 걷는 두 사람의 여정은 험난하기만 하다. 코맥 맥카시의 『더 로드』와 패트릭 네스의 『The Knife of Never Letting Go』를 상기시키는 이 특별한 이야기는 분명 허구지만, 지구 온난화로 2050년이 되면 바다에 물고기보다 버려진 플라스틱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UN의 경고나 전 세계적으로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난 사람들의 숫자가 현재 2억 5800만 명에 이른다는 통계를 감안하면 오싹하리만치 선명한 현실감이 느껴진다. 총알 하나 없는 빈 총과 여권 하나만 덜렁 들고, 수단에서 영국까지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미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죽음을 지켜봐야 했던 어린 소녀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알면서도 어린 아이를 지켜

내려 담담하게, 그러나 흔들림 없이 애쓰는 모습만으로 깊은 감동을 주는 소설이다.

마이리가 겨우 다섯 살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 소년을 만난 건 히드로 공항에서 도망 나온 지 21일 째 되던 날, 500 킬로미터 넘게 이동하여 목적지인 할머니 댁에 한층 더 가까워진 때였다. 인적이 끊긴 숲길을 홀로 걸어가던 중 누군가의 발에 밟혀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를 예리하게 집어낸 마이리는 이미 익숙해진 도망자 특유의 날쌔 몸놀림으로 소리가 나는 쪽을 찾아냈다. 녀마를 걸친 남자와 그 곁에서 눈만 초롱초롱한 채 가만히 서 있던 소년은 총을 겨누며 가까이 오지 말라는 마이리의 명령에 순순히 따랐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아이 곁에 서 있던 남자는 갑자기 고꾸라져 쓰러졌고, 그 뒤로 의식이 깨어나지 않았다. 마이리는 서둘러 남자의 주머니를 살살이 뒤졌지만 신원을 알 수 있는 여권은 보이지 않았다. 길 위를 떠도는 수많은 난민들이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하는 것들, 물통이나 비상식량, 무기 같은 것도 전혀 없었다. 자신도 도망자 신세라 누구를 도와줄 여유가 없고, 수단에서 함께 도망쳤던 친구 모하메드가 그런 친절을 베풀다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았기에 마이리는 그냥 돌아서서 홀로 길을 떠날 생각이었다. 반드시 살아내겠다고 엄마아빠와 약속한 것을 지키려면 서둘러 발길을 돌려야만 했으리라. 하지만 마이리는 두 눈에 눈물이 가득한 그 아이를 버려둘 수 없었다. 그대로 두면 며칠, 혹은 몇 시간 안에 죽게 될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소년을 책임 지고 데려가기로 마음 먹은 마이리는 갈수록 엄격해지는 검문에서 스스로도 놀라울 정도로 뻔뻔한 거짓말을 하며 수 차례 위기를 모면한다. 과연 할머니 댁까지만 가면 아이도 마이리도 정말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은 스코틀랜드도 자꾸 모여드는 사람들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조치들을 마련했다고들 이야기했다. 74세가 되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 없이 안락사를 받아야 하고 스스로 좀 더 이른 죽음을 택할 경우 남은 생애는 원하는 사람을 지명해서 '선물'로 줄 수 있다는 규정도 마련되었다. 마침내 스코틀랜드에 도착한 마이리는 길에서 들었던 사람들의 우려나 소문이 결코 거짓이 아니었음을 체감한다. 국적도 알 수 없고 신원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한 장 없는 사람을 불법으로 데리고 다닌 것,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멀쩡한 여권도 잃어버렸다고 거짓말 한 것이 모두 들통나고, 마이리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수단에서의 일과 히드로 공항에서 왜 도망칠 수밖에 없었는지에 관한 진실이 모두 드러나 마이리와 소년은 물론 할머니와 가족 모두에게 큰 영향을 줄 위험이 발생한다. 마이리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소년의 소중한 생명을 끝까지 보존할 수 있을까? 생존이 당연한 권리가 아닌, 어떤 형식으로든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냉혹한 세상에서 작은 친절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지,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게 만드는 감동적인 소설이다.

#### <저자 소개>

니키 싱어(Nicky Singer)는 작가이자 극작가로 활동해 왔다. 첫 번째 아동소설 『Feather Boy』로 블루피터 '올해의 도서' 상을 받았다. 해당 소설은 TV 드라마로 제작되어 영국 영화·TV 예술 아카데미(BAFTA) 최우수 어린이 드라마 상을 수상했으며 뮤지컬로도 만들어졌다. 또 다른 소설 『Island』는 CILIP 카네기 메달 후보에 올랐다.

제목 : THE GIRL WITH MORE THAN ONE HEART

가제 : 심장이 두 개가 된 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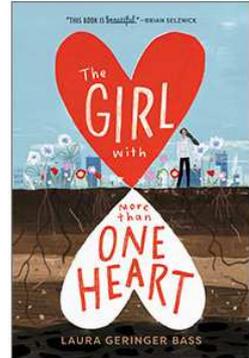
저자 : Laura Geringer Bass

출판사: Harry N. Abrams

발행일: 2018년 4월 17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 “장애를 가진 형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부모, 부모의 우울증과 같은 묵직한 주제를 우아한 문장으로 공감할 수 있게 다룬 소설” - 「커커스 리뷰」
- \* “슬픈 일을 겪은 주인공의 성장기를 비극적인 사건 이후 친구 관계나 가족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관한 이야기와 균형을 맞춰 예리하고 현실적으로 그린 소설” - 「스쿨 라이브러리 저널」

여덟 살이나 어린 남동생이 태어난 후 엄마아빠가 마치 둘로 쪼개진 것처럼 엄마는 동생을 전담하고 아빠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던 브리아나는 어느 날 갑자기 아빠를 잃는다. 천하무적 같던 아빠가 아침 운동을 하다가 쓰러져 혼자 숨을 거둔 그 날 브리아나에게는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사이클 운동기구 위에서 의식을 잃은 아빠를 발견하고 엄마가 구급차를 호출한 직후, 뱃속에서 뭔가 작은 주먹만한 새로운 덩어리가 생긴 느낌이 든 것이다. 브리아나는 오른쪽 갈비뼈 아래에 자리잡은 그 덩어리가 또 하나의 심장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더 이상한 일은, 그 날 아빠의 심장에 굉장히 희귀하고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그 자리에서 멈춰버린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브리아나의 몸에 새로 생긴 두 번째 심장은 아빠의 심장일까? 왜 아빠의 심장이 따로 분리되어 브리아나에게로 들어왔을까? 엄마는 너무 놀라고 충격을 많이 받아서 온몸에 맥박이 뛰는 걸 그렇게 느끼는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브리아나는 분명 심장이라고 확신했다. 얼마 후, 두 번째 심장이 말을 걸고 이해하기 힘든 지시를 내리기 시작한다.

브리아나의 남동생 애런은 태어난 직후 자폐증 진단을 받았다. 엄마는 원래 직장인이었지만 그 진단이 내려진 직후 하던 일을 그만두고 하루 종일 애런을 돌보는 일에 매달렸다. 애런은 안 먹는 음식도 많고 이것저것 평범한 어린 아이들과 달리 챙겨야 할 일들이 많아서 엄마는 한 시도 동생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 사이, 아빠는 늘 브리아나의 곁에 있던 엄마 자리를 대신했다. 엄마 대신 학교에 데려다 주고 수업이 끝나면 데리러 오고, 엄마나 애런이 꼭 붙어 있는 동안 시내에 나가서 영화도 보고 외식도 했다. 브리아나는 애런이 태어나기 전처럼 엄마와 단 둘이서만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머릿속으로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문득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 그리웠다. 엄마를 동생에게 빼앗긴 것 같은 기분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애런이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서 부모님을 힘들게 하는 것도 브리아나는 크게 내색하지는 않았지만 영 못마땅했다. 아빠가 생전

그토록 사랑했던 가족들과 작별인사를 나눌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운동 중에 심장이 멈춰버린 것도 애런 때문에 너무 많은 에너지와 감정을 쏟아 붓느라 심장에 병이라도 생긴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부터 든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그래서 평소에도 ‘사랑한다’는 말이 잘 나오지 않던 동생이 원망스러워진 브리아나는 그런 감정과는 정반대의 상황에 내몰린다. 아빠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이 지나도록 엄마는 슬픔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일상생활조차 거의 불가능할 만큼 하루 종일 울기만 했다. 잠옷에 슬리퍼 차림으로 온종일 누워만 있고 아무 것도 하지 않으려고 했다. 결국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줄 일이 많은 애런을 브리아나가 돌보아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엄마가 너무 크게 상심해서 모든 기력을 잃었다는 것쯤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며칠, 몇 주가 지나도 엄마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앞친 데 덮친 격으로 학교에서도 불쾌한 일이 벌어진다. 단짝 친구인줄 알았던 아이들이 브리아나가 태어나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배신과 거짓말의 쓴 맛을 제대로 본 브리아나는 그제야 겉으로만 친절하고 착해 보이는 친구와 드러나지 않아도 함께 있을수록 마음 편한 진짜 친구를 구분하는 법을 조금 알게 된다. 이 모든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는 사이, 브리아나의 두 번째 심장은 계속해서 속삭이고, 자꾸만 말을 걸며 브리아나를 당황스럽게 만든다.

엄마 대신 애런을 유치원에서 데리고 오고 저녁에 목욕도 시키고 잠들 때까지 곁에 있어주는 일을 반복하던 브리아나는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감정을 깨닫고 부끄러워진다. 동생 때문에 아빠도 엄마도 너무 많은 에너지를 빼앗긴 것 같다고, 그리고 동생 때문에 엄마도 빼앗겼다고 생각했던 마음이 너무 커서 동생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 뒤에는 애런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된 것이다. 학교 신문사에 들어가서 글을 쓰고 싶은 욕심과 오래 전부터 가장 절친한 친구였던 피터에게 느끼기 시작한 낯선 감정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고픈 마음을 전부 애런이 가로 막는다고 생각하고 불평했던 시간들도 모두 후회스러웠다. 신기하게도, 아빠의 심장이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게 브리아나에게만 속삭이는 메시지들을 다룬 후에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됐다는 것이 더욱 신기했다.

브리아나의 회상과 늘 신기한 이야기나 옛날 이야기를 들려 주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시간을 넘나들고, 그리스 신화나 브리아나가 혼자 머릿속으로 각색한 ‘망가진 동화’와 절묘하게 결합되어 뜻하지 않은 상실과 고통을 겪을 때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관계를 단단하게 묶어주는 이야기의 힘을 보여준다. 상실과 회복의 험난한 과정을 섬세하고 아름답게 탐구한 멋진 소설이다.

#### <저자 소개>

로라 게링거 배스(Laura Geringer Bass)는 CBS 드라마로도 제작된 『Myth Men』 시리즈를 포함하여 『A Three Hat Day』, 『an ALA Notable Book』, 『Sign of the Qin』 등 아동 소설을 여러 편 발표했다. 하퍼 콜린스 출판사의 임프린트 Laura Geringer Books에서 20년 이상 편집자로 일했다. 뉴욕 작가워크숍 강사, 스토니브룩 대학교의 아동문학 대학원 프로그램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